금주의 법구-〈법구경〉
우리 성난 마음은 불과 같다.
한순간의 성난 마음은
능히 착한 마음을 태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8월 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65호 2017년 9월 20일 수요일

"옛날식 강의" 볼멘소리 학생 신뢰·만족도 높여라

[해설] 위기의 금강대, 선결과제는?

지난 7월 '막말 파문' 총장의 사퇴 이후 천태종립 금강대 총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다. 내년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여서 1주기 평가 D등급을 받은 금강대는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이에 본지는 신임총장 선출에 앞서 금강대 현주소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를 짚어봤다.

진로 · 취업지도 밀착 관리 要

금강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학제가 변경됐다. 정병조 4대 총장은 2014년 4월 임기 말미에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입학정원을 165명에서 145명으로 감축하고, 4개 학부 9개 학과를 2개 학부 6개 학과로 개편했다. 하지만 2015년 한광수 5대 총장은 취임 후 4개 학부 10개 전공으로 변화를 줬다. 당시 정보과학부 컴퓨터학전공 신설은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많았으나 관철됐고, 교육부 컨설팅서 지적을 받아 결국 1년 만에 폐과됐다. 이어 한 총장은 2016년 다시 2개 학부로 개편, 전공 개념을 없앤 '자율융합전공' 체제로 바꿨다.

문제는 '전공필수' 강의를 설정하지 않아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만 채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자율전공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잃고, 몇몇 교수들의 시수만 늘어났다"면서 "고교 교사들 사이에서 (금강대에) 학생을 보내면 안 되겠다는 얘기도 들린다.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결국 학제 혼란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재학생들에게 돌아갔다. 변경된 학제에 대한 세부 매뉴얼조차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이 갖는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소해주지 못한다는 게 주된 평가다.

한 재학생은 "자율전공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를 실행할 대학 역량이 있는지 모르겠다. 구체적인 정보공유도 부족해 학제에 대한 설명이 관계자마다 다르다"며 "사전에 시뮬레이션 된 건지 의문스럽다. 학제를 세세하게 알려줄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금강대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자 소규모 대학 특성에 맞는 학생지도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최소 수강인원이 5명일 정도로 적기 때문에 집중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원식 인재관리처장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당장 학제를 개편하긴 어렵다. 따라서 진로나 취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우선"이라며 "재학생이 원하는 진로에 맞춰 어떤 지원을 뒷받침할 것인지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3년동안 학제개편만 세 차례
전문성 낮고 학생 혼란 가중
강의평가 결과 공개 안 되고
'교수활동' 학생 만족도 낮아
타 대학 신뢰도 높이기 위해
강의평가 결과 재학생에 공개

강의평가 피드백 없어

하지만 이보다 큰 문제는 학교 규정상 강의평가에 따른 교원 불이익이 없어 강의수준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시간강사의 경우 강의평가 점수가 낮으면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나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규정 내 배점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학부교육선도대학협의회가 전국 108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학부교육 실태조사(K-NSSE)'에 따르면 금강대는 '효과적인 교수활동 인식' 부문서 전국 평균을 한참 밑도는 재학생들의 평가를 받았다. 다른 부문이 평균값 또는 그 이상인 것과 대비된다. 즉 △수업 목표 △쉽고 체계적인 설명 △과제에 대한 피드백 등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문제는 올해 1학기 총학생회 대의원회의서도 언급됐다. 전반적으로 전임교원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좋지 않았고, "옛날식 강의다" "녹음파일을 틀어주는 것으로 수업을 대신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2015년 학교 측이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추가한 '학부 학생만족도 설문조사'는 모든 문항을 '불만족'으로 답해도 교수가 만점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학 관계자는 "구조개혁평가 때문에 급하게 만든 것이라 이상한 부분이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강의평가 공개로 신뢰를

따라서 금강대는 맞춤형 취업 · 진로지도, 강의평가에 따른 교원관리를 통해 재학생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과제로 꼽힌다. 타 종립대학의 경우 오래 전부터 강의평가 결과를 재학생에게 공개하고, 교원과 학생 의견을 받아 평가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2008년 전국대학 최초로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한 조계종립 동국대는 수강신청 이전에 각 강의 교수에 대한 평가결과를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의규모 · 수업유형별 등으로 구분해 강의평가를 실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동국대 관계자는 "시대 흐름에 따라 '교수의 차별적 발언' 등 인권 관련 문항을 추가하는 등 강의평가 제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각종립 위덕대도 강의평가 결과를 재학생들에게 공개한다. 이 결과는 교원업적평가에 크게 반영되진 않지만 해당 강의평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담보된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금강대는 학생들에게 강의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김의찬 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에 평가결과 공개를 요청해봤지만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선 학생만족도가 우선돼야 한다"며 "학생회 차원에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남 총장직무대행은 "타 대학처럼 표본이 많지 않아 수강생 4~5명의 평가결과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있다. 문항 수정도 필요해 당장 반영하긴 어렵지만 학생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무구정광 진본 공개에 스님들도 '관심 집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진본이 9월 13일 불교중앙박물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10年×10人×10來'에서 공개됐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진본이 전시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개막식이 열린 이날 가장 주목을 받았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진본을 9월 22일까지만 공개한다.

글 · 사진= 박아름 기자

"35대 총무원장 선거 엄격히 관리"

자승 스님 11일 담화문 발표… 公心·종헌종법 질서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종헌종법에 따라 엄중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승 스님은 9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총무원부 · 실장, 국장, 산하기관장, 선임차 · 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확대 종무간담회에서 이 같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자승 스님은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펼치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가장 무겁게 법을 적용해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모든 교역직과 일반직 종무원들이 엄정 중립의무를 지켜 공정선거,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최근 종단 안팎으로 번지는 촛불법회 등의 갈등상황에 대해 "종단을 향해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의 일부 주장에는 사실 관계의 오인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내용이 모두 종단을 향한 열정에서 나오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종무행정의 수반으로서 사부대중에게 참회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총무원장 선거가 종헌종법 질서 속에서 잘 회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30일 임기가 끝나는 자승 스님은 8년간의 화두를 '공심(公心)'으로 정리했다. 스님은 "제33대, 제34대 집행부는 중앙종회, 교구본사와 함께 힘을 모아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많은 종단적 과제들을 실현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조계종에 더 많은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종단 구성원 개인은 여전히 자신과 사찰, 문중의 범위에 고민이 머물러 있다. 잘 운영하는 사찰도 종단적 정체성보다는 자신을 교조처럼 믿고 따르게 하는 '주지불교'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현실도 그렇다.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일상의 삶으로 전하지 못하는 불교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다. 제35대 총무원장 선출을 계기로 사부대중 모두 한마음 한몸으로 움직이며 생동하는 불교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끝으로 "남은 임기동안 총무원장 선거의 원만한 회향을 통해 종단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진력하겠다. 저 또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돌아가 여러분과 함께 수행의 길에 도반이 돼 희망의 한국불교를 열어나가는 정진에 동참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165호 INDEX

추석특집 5
추석맞이 템플스테이
주요사찰 합동차례



리더에게 聽하다 B1·2
조계종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



-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즈음하여 -

2017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불교는 안팎으로 거대한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적 지혜에 입각하여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밝혀주신 사부대중 공동체의 삶을 종단이라는 틀 안에서 실현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둘러싼 환경은 무엇 하나 가볍지 않습니다.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는 10월 12일 치러지는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는 불교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성찰 속에서 새로운 백년대계의 초석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법석입니다. 안정과 화합의 분위기로 새로운 총무원장을 여법하게 선출해야 하는 시대적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총무원장 선거를 통해 종도 모두와 사회에 귀감이 되는 활발발한 탁마의 자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8년간 저의 화두는 오직 '공심(公心)'이었습니다.

제33대, 제34대 집행부는 중앙종회, 교구본사와 함께 힘을 모아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많은 종단적 과제들을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대한불교조계종에 더 많은 사회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요구를 종단적으로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하지만 우리 종단 구성원 개인 개인은 여전히 자신과 사찰, 문중의 범위에 고민이 머물러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는 사찰도 종단적 정체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자신을 교조처럼 믿고 따르게 하는 '주지 불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도 그러합니다. 문명의 발달로 정신 분야에서 종교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일상의 삶으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불교의 위기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때 치러지는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입니다. 조계종 공동체가 어떻게 지도자를 선출하는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35대 총무원장 선출을 계기로 사부대중 모두가 한 마음 한 몸으로 움직이며 생동하는 아름다운 불교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회와 종단의 현실을 바라보며 종단 운영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우리 종단의 사부대중 모두가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부처님 법을 온전히 실천해 가는 큰 울타리로 잘 가꾸어 나가기를 서원합니다.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종헌 종법에 따라 엄중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선거 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에 종단 집행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과 더불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무겁게 법을 적용하여 혼란의 싹을 자를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교역직과 일반직 종무원들이 엄정 중립의무를 지켜 공정선거,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종단 주변에서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분명, 종단을 향해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의 일부 주장에는 사실 관계의 오인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내용이 모두 종단을 향한 열정에서 나오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종무행정의 수반으로서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는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맞아 종헌종법 질서 속에서 잘 회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 수희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0여일 후면 8년간 총무원장으로서의 소임을 회향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35대 총무원장 선거의 원만한 회향을 통해 종단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종단의 안정과 화합은 사부대중 모두가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저 또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돌아가 여러분과 함께 수행의 길에 도반이 되어 희망의 한국불교를 열어나가는 정진에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61(2017)년 9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